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 “尹 탄핵·즉각 체포” 촉구

姜시장 “토요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탄핵해야”
 金지사 “담화, 반헌법적 세력 자인 한심·참담”
 5개 구청장, 탄핵안 가결시까지 매일 1인시위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담화 이후 전국 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 체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페이스북에 “답 없는 윤석열! 지금 당장 체포하라”고 적었다. 강 시장은 “국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이 DAV IDA, 토요일이 아니라 지금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시장은 집무실의 6대 국정지표 액자를 철거하는 사진도 올렸다. 강 시장은 “윤석열을 오늘 자로 대통령직 위에서 파면한다”며 “광주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광주는 선언한다”고 적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입성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한 것으로 14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우리 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김 지사는 “담화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심하고 참담한 놔두리일 뿐이었다”며 “일부 보수 유투버의 허위사실과 편협한 주장을 방패삼아,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려는 얄디얄 수에 통탄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을, 5천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겠나 12월3일 반헌법적 폭거도 모자라 열흘 만에 한 치의 반성도 없는 이런 파렴치한 담화를 발표한 것인가”라며 “탄핵의 시급성과 당위성만 더욱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불법적인 담화다. 내란범으로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정문 앞 텐트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남도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12일 광주 5개 구청사 앞에서 임택 동구청장(왼쪽부터)·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문인 북구청장·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중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들은 소속 기관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오전 각 구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구청장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

까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두 차례 시위를 지속하기로 했다.

구청장들은 이날 피켓 시위 이후 오전 8시50분부터 광주 동구청에 모여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해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을 논의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시민들은 추위 속에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청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침체한 민생 경기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경제를 위해 하루 빨리 하야해야 한다”며 “하야하지 않는다면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금 국군통수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 한시라도 빨리 국군통수권을 내리기 위해서는 탄핵 밖에 답이 없다”며 “하야를 기다리다 2의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민주당 기초단체장이 71명인데 국민의 마음과 함께하고자 피켓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전 국민의 바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정국 안정, 민생 회복”이라며 “탄핵 후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정·변은진·안재영·주성학기자

시·도의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민주·무소속 시의원 “법정최고형 처단해야”
 도의회, 즉시 체포·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12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청사 1층에서 탄핵 집회를 열어 “수사기관은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고 격리해야 한다”며 “법정최고형으로 처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탄핵이 눈앞에 왔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자신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과 자기당작으로 국민을 조

롱하고 무시했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과대망상과 선거음모 등 내란 행위에 대한 뻔뻔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내란죄가 확정되면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달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탄핵이 이뤄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윤석열 즉시 체포·탄핵 촉

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30년간 담화에서 국민에게 보인 망언은 1980년 광주를 군화발로 짓밟았던 전두환과 같은 독재자의 모습 그대로였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고 극우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한 발약”이라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또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을 1분 1초라도 극우적인 망상에 빠진 피의자 윤석열에게 맡길 수가 없다”며 즉시 체포를 요구했다.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는 탄핵 의결을 미룰 여유가 없으며 오늘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14일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변은진기자

민주 전남도당, 與 인요한 사퇴 촉구

“내란수괴 비호...민주주의 지켜온 전남도민에 상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국민의힘 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전남도민에게 인요한 최고위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 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5·18 정신을 부정하고 내란 사태 상설특검, 내란 범죄 혐의자 내란수괴를 비호한 인요한 의원은 즉

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전남도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인 최고위원이 탄핵소추안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고 12·3 내란 사태 상설특검,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당은 “(인 의원은) 과거 전남 사랑임을 자랑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면서 5·18 정신 계승을 부르짖는 전남 사람”이라는 주장에 역행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남도민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인요한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거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김재정기자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였다.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6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6.2%였다.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적 없다는 응답은 27.3%였다.

/연합뉴스

‘尹 즉시 하야·탄핵’ 74.8%...‘계엄 트라우마’ 66.2%

국민 10명 중 7명이 넘게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거나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4.4%p)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4.8%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안대로 ‘질서 있는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드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